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자

[별호]

주제 101
(2012). 3

27
화요일

음력 3. 6

실용위성발사는 민족의 사변

오는 4월에 공화국에서 지구판 측위성 『광명성-3』호를 쏘울 계획 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수수 천년 바라온 우주에 대한 리상과 포부를 실현하는 중대한 사변이며 거제의 자랑이다.

우리 민족은 고구려시기인 5세 기말~6세기초에 벌써 석각천문도를 만들어 천문학리론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리조시기인 14세기 말에는 천문도인 『천상렬차분 애지도』를 편찬하여 중세기 발전된 우리 나라의 천문학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오랜 역사기간 우리 민족이 간직하여온 우주에 대한 아름다운 꿈은 봉건적질과 일제의 식민지노예의 발굽밑에서 너무도 깃밟혀있었다.

밤하늘은 하늘에 운명의 쪽배를 떠여놓고 살길을 찾던 우리 거제가 자기의 존엄을 드넓은 우주에 떨쳐져 된 것은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혁신적인 노력에의한 것이다.

민족의 오랜 원원을 실현하시려 100년, 1000년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선견지명의 천재적 예지와 완강한 의지력으로 모진 고난을 앞장에서 헤쳐오신 절세의 애국자가 장군님이시다.

세계 정치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혁사의 초행 길을 헤쳐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에 민의 혁신의 자욱이 있어 선군조선은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의 존엄을 21세기의 하늘가에 높이 올려세웠다.

1998년 8월과 2009년 4월에 진행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와 『광명성-2』호의 성과

적발사...

실로 두차례에 걸친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발사는 세세년년 간직하여온 우리 민족의 우주의 꿈이 현실로 꽂혀난 환희의 순간들이였다.

이제 또다시 지구판 측위성 『광명성-3』호의 발사를 민족의 리상과 포부를 실현하는 창조물을 선군의 푸른 하늘에 높이 떠올릴 장쾌한 시각을 맞이하고 있으니 온 거제가 기쁨과 환희로 가슴설레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진행될 지구판 측위성

『광명성-3』호의 발사는 평화적 우주리용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

에로 끌어올려 민족의 위력을

파시는 자랑찬 계기로 된다.

인류의 우주개척구상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하늘에는 수만개의 인공위성이 떠 있으며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하나의 세계적추세로 되고 있다.

1966년 유엔총회에서 제작한

『달과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의 탐사와 리용에 각국의 행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일명 『우주조약』) 제1조에는 『모

든 나라들은 경제적, 과학적 발전 수준과 무관하게 각자의 리익과 혜택을 위해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를 탐사하고 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인류는 우주의 탐사와 리용을 자기의 분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이번 지구판 측위성

『광명성-3』호의 발사는 우주를 평화적으로 리용하려는 인류의 우주개척을 지향하는 세계과학기술발전의 추세, 이를 담보하는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정정당당한 조치이다.

하지만 평화적위성을 쏘울려

는 공화국의 조치를 『미싸일발사』로 몰아붙이며 국제정세를 위협국면에 물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

미국은 공화국의 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로 광고하면서

최근 조미간에 합의된 식량지원

이 어렵다느니 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반동들은 감히 미싸일방어체계(MD)로 『요격』 하겠다는 망발까지 쏙아놓고 있다.

여기서 일부나라들까지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이요, 『심각한 우려』로 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대조선적대

시정책에 편승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지지』에

『고무』를 얻은 리명박여적폐

당은 공화국의 위성발사를 유엔안보리 사회경의에 대한 『위반』이요, 『중대한 도발』이요

뭐로 하며 매일과 같이 헐뜯다

못해 『광명성-3』호의 자리를

추적이라는 미명 아래 조선서해와 남해에 이지스함들을 배치하기로

하고 감히 『요격』에 대해 떠드는 광증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암살정책의 산물이다.

공화국은 평화를 가장 귀중히 여기는 나라이며 그 누구를 위협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도발』로, 『위험』으로 묘사하며 긴장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물어오고 있는 것은 미국과 리명박보수당을 비롯한 적대세이다.

공화국의 위성발사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그 누가 감히 『요격』에로 나온다면 그 후파는 상상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승덕

선이 지구판 측위성을 일본에서 발사하겠다고 하였을 때에는 말 한마디 없던 미국과 일본 등 일부 나라들이 공화국의 위성발사계획에 대해서는 폐대를 세우고 목청을 높이는 것이다.

저들의 위성은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공화국의 위성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된다는 이중기준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없다.

아버지 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자체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정책과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지구판 측위성 『광명성-3』호의 발사를 놓고 이러쿵저쿵하는 자체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이다.

리명박여적폐당은 비롯한 반공

화국적대세력은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어떤 압력과 제재속에서도 끄떡없이 수호해나

가려는 선군조선의 의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위성발사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철두철미 공화국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공화국은 평화를 가장 귀중히 여기는 나라이며 그 누구를 위협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도발』로, 『위험』으로 묘사하며 긴장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물어오고 있는 것은 미국과 리명박보수당을 비롯한 적대세이다.

공화국의 위성발사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그 누가 감히 『요격』에로 나온다면 그 후파는 상상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승덕

애도기간에 올린 위성발사예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1998년 8월 31일, 공화국에서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지구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왔다.

그로부터 5일 후 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하여 공화국에서 첫 인공지구위성 성공적으로 발사된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년 전에는 공화국에서 곧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